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⑩ 싯달타 태자의 사문유관



▶ **한줄요약**
구이와 결혼한 싯달타 태자의 관심은 오로지 성문 밖 세상이었다. 그래서 어느 날 태자는 성문 밖으로 가서 시찰하기로 한다. '사문유관'의 시작이다. 동문 밖으로 간 태자는 노인을 보고 늙음에 대해 성찰한다.

"목숨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림 · 강병호

〈석보상절〉 3권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문유관(四門遊觀)'을 읽어보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석보상절〉이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던 독자라 할지라도 이 글을 읽게 되면 좋아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오랫동안 내 마음의 경구로 삼았던 '생로병사'의 정의 중 '늙음'에 대한 번뜩이는 사유가 멋지다. 먼저 사문유관의 성찰이 깊어지게 된 인생의 첫 경험, 싯달타 태자와 구이의 신혼 시절을 들여다 보자.

태자, 구이와 결혼하다

그제서야 집장석의 딸이 태자의 부인이 되었다.

재주겨를 때 부처의 나이 열 살이시니 주나라 소왕 35년 기해(B.C. 960년)요, 부인을 맞이한 것은 태자나이 열일곱이시니 주나라 소왕 42년 경오(B.C. 953년)이다.

태자가 부인을 들이시고도 친근하게 하지 않으시니 구이의 마음은 가까이 가고자 하므로 태자가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꽃을 우리 사이에 놓고 보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구이가 꽃을 가져다가 놓고 또 태자 곁으로 나아가려 하거늘 태자가 말씀하셨다. "꽃의 이슬에 그대가 젖으리라."

후에 또 백첩을 둘 사이에 놓아두고 보셨다. 백첩(白氎)은 흰 목면이니 서천 말에 가바라(迦波羅)이다. 구이가 또 가까이 오려 하시거늘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백첩에 때가 묻으리라." 하시므로 구이가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도대체 구이에게 장가가기 위하여 어떻게 한 결혼이란 말인가. 코끼리를 내던지고 팔만 가지의 지식을 겨루고 28개의 북을 화살로 쏘아 맞추고도 모자라 철위산을 뚫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서야 성사된 결혼이 아니었던가. 경쟁자 조달과 난타, 염광을 이기고서 맞이한 신부 구이와의 결혼 생활은 반전의 연속이다.

신혼의 단꿈을 예상했을 구이의 허니문은 온데간데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이를 기피하고 있는 새신랑 왕자님이라니…. 구이의 입장에서라면 완벽한 사기 결혼이다.

우리는 물론 태자가 세속에 뜻이 없고 출가하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아버지 정반왕의 염려를 익히 보아왔다. 그러던 그가 집장석의 따님 구이에게만은 첫 눈에 반하여 그 어려운 대결을 기꺼이 수락하고 천신만고의 기량을 펼쳤던 것이 아닌가.

그나마 구이를 다가오지 못하도록 꽃병을 놓게 하거나 꽃이슬로 구이가 젖을까 걱정하는 척하는 것은 귀엽게 봐줄만 하다. 하지만 귀한 흰 천 백첩을 사이에 놓고 흰 천이 때탈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치사한 처사다. 이것은 마치 시쳇말로 결혼 전에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굴던 흑기사가 결혼만 하고 나면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아닌가. 〈석가보〉 1권 '서응본기(瑞應本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태자의 나이 17세가 되자 정반왕은 태자비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수천 명 가운데 고르다가 최후에 구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이름이 구이였다. 그는 단정하기가 제일이었고 예의를 모두 갖추었으니 바로 전생에 꽃을 판 여인이었다.(瑞應本起云: "太子年十七 王爲納妃 簡選數千最後一女 名曰裘夷端正第一 禮義備擧 是則宿命 賣花女也")

그렇다. 〈월인석보〉 1권에서는 과거 전생에 연등불께 꽃 공양을 하려는 싯달타의 전생 선혜보살의 이야기가 전한다. 일곱 송이 꽃을 가지고 있던 구이가 선혜에게 꽃을 주고 세세생생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전생담이다. 그때에도 '단정 제일'의 구이는 적극적이고 선혜는 수행자로서 살겠다고 처음에 거절한 전력이 있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하겠다는 구이의 서원으로 세세생생 부부가 되었다는 스토리텔링이다. 〈월인천강지곡〉의 게송은 다음과 같다.

사십이장
꽃을 놓으시며 백첩을 놓고 두 분이 한 곳에 앉으시니
꽃 이슬에 젖으리라 백첩에 때 묻으리라 두 분이 갈라 앉으시니

'백첩(白氎)'이 여기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중요한 매개물로 등장하는데 고대에 제작되었던 귀한 직물로 터키어의 면직물을 의미하는 'Pakhta'의 한자어 음역으로 보고 있다. 〈삼국사기〉에도 신라에서 경문왕 때에 40승백첩포(四十升白氎布)를 당나라에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 구이와 결혼 후 거리두는 태자
> 오로지 관심은 성문 밖 세상에
> 동서남북 성문 돌며 민간 시찰
> 동문서 노인을만나 '老' 성찰해

성문 밖서 4苦를 보다

그렇다면 태자의 관심은 어디에 쏠렸을까. 나이도 경전에 따라 분분하지만 〈석보상절〉에서 말하는 이팔청춘이라면 당연히 궁궐 밖 세상 일이 궁금했을 것이다. 성문 밖 사대문에서 벌어지는 '생로병사' 이야기는 지금의 우리에게 자못 의미심장하다.

태자가 나가 노닐면서 염부수 아래 가셔서 밭 가는 사람을 보고 계시니 나뭇가지가 굽어져 햇빛을 가렸다. 정거천(淨居天) 조병(澡餠)이 죽은 벌레로 변해 떨어져 있었다.

정(淨)은 깨끗하다는 것이요 거(居)는 산다는 것이니 탐욕을 여의고 깨끗한 몸이 사는 하늘이니 무변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이다. 조병은 이름이다.

까마귀가 와서 그 벌레를 찍어 먹는 것을 태자가 보시고 자비심을 내시거늘 정반왕이 뒤따라 가셔서 달래어 모셔 왔다.

왕은 태자가 출가할까 걱정하여 풍류하는 여인들을 더하여 마음을 잦아들게 하셨다.

마치 처용이 서라벌 달 밝은 밤에 밤들이 노니는 광경이 연상되지 않는가. 밤이 아니라 낮인 것만 다를 뿐이다. 나뭇가지가 저절로 굽어 햇볕을 가려주는 태자에게 정거천은 기다렸다는 듯이 죽은 벌레로 변해 까마귀의 먹이가 된다. 약육강식의 세계를 본 태자는 차마 못하는 마음, 자비심을 일깨운다.

출가를 할까 태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걱정인 아버지 정반왕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쫓아가 데려오고 노래와 춤, 음악에 능한 더 많은 엔터테이너 여인들을 태자 곁에 두어 그런 마음을 눅이고 있는 것이다.

정거천(淨居天)은 색계의 네 번째에 있는 다섯 하늘을 통틀어 일컫는다. 산스크리트어 'Śuddhâvāsa-deva'의 의역이다. 정거(淨居)는 정(淨, śuddha: 청정)과 거(居, vāsa: 거주처, 처소)가 합쳐진 낱말로, '청정한 거처(pure abode)'이며 청정한 업(淨業)을 이룬 성인이 태어나 거주하는 처소를 말한다. '불환천(不還天)'이라고도 하는데 윤회를 벗어나 다시는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태자의 출가 안내자 역할을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월인천강지곡〉은 이 모든 일이 전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갈파하고 있다.

사십삼장
태자는 무량겁부터 부처이시니 죽어가는 것의 일을 본 적 없어도 어찌 모르시리
정거천 조병이 죽은 벌레 되거늘 태자가 보시고서야 아는 것처럼 하시니

이제 정거천과 합작으로 짐짓 세상의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자비심을 장착한 태자의 눈에 인간의 노병사(老病死)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만고의 명문장들을 만나보기로 하자.

태자가 성문 밖을 보고 싶다 하시거늘 왕께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마을 고을이며 동산을 깨끗이 꾸며 더러운 것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다.

태자가 동문 밖에 나가시니 정거천이 늙은 사람이 되어 막대기 짚고 가거늘 태자가 보시고 물으셨다. 모시던 신하가 대답하였다. "늙은 사람입니다."

태자가 물으셨다. "어찌 늙다고 하느냐."

대답하되 "예전에 젊던 사람도 오래 되면 늙나니 인생에 늙음을 면할 사람은 없습니다."

면(免)은 벗어나는 것이다. 태자께서 이르셨다. "사람의 목숨이 흐르는 물 같아서 머물지 못하나보다." 하시고 돌아와 들어오셔서 세간의 슬픈 마음이 깊어지셨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늙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는 것이다. 신하의 설명에 태자의 사유가 기가 막히다. 사람의 목숨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다니…. 한 번도 내 목숨을 흐르는 물로 생각해 다급해 본 적이 없었다. 진작 이런 사유를 알았다면 인생 흐름이 속절없음을 알았다면 젊음이 사라질 것을 재빨리 간파하고 좀 더 현재에 집중했을까. 젊을 때 미래의 막막함과 불안함에 오래 뒤채며 아름다운 청춘인 줄도 모르고 흘려보내는 우를 범하는 것만은 막았을까.

〈석가보〉 1권의 '대선권경'과 비교하면 〈석보상절〉이 더욱 군더더기 없이 명쾌함을 알 것이다.

'해와 달이 흐르고 지나가며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옮겨가면서 늙음에 이르는 것은 마치 번개와 같구나. 이 몸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비록 부귀하다 하더라도 어찌 홀로 면하게 되겠느냐. 어찌하여 세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다음에는 늙음보다 더욱 명문장인 인간의 병고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기대하셔도 좋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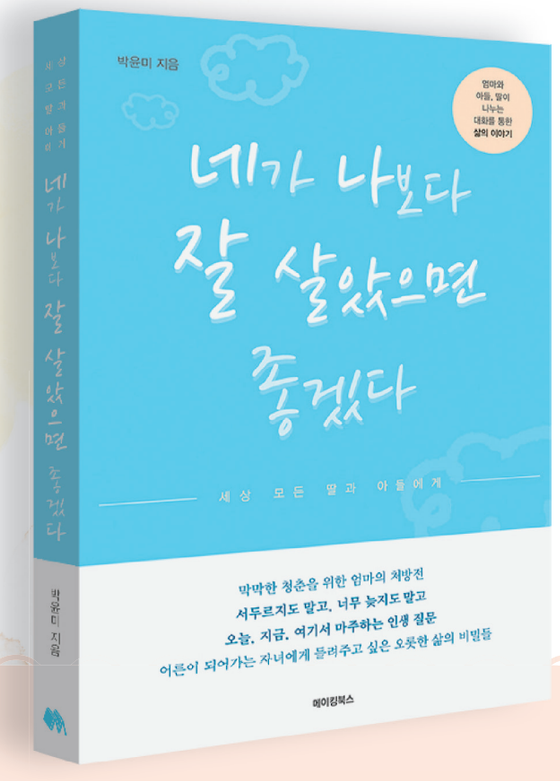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2020년 신간
천만 불자(佛子)들의 필독서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세상에 대한 무수한 의문, 살아야 할 이유,
모든 해답이 부처님 가르침 안에 존재합니다.

불자로서, 어머니로서,
청춘들에게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부모님께는 자녀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줄 힘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그윽한 자비를 누리시길 빕니다.

이 책 한권으로,
부처님 전에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는
기적을 체험하세요!

네가 나보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박윤미 지음 | 220쪽 | 14,8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